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박영선 후보에 18% 89만표 차 압승
뚝당선자 “서울을 다시 뛰게하겠다”
내년 大選·지방선거에도 영향 줄 듯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5개구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압승을 거두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100% 완료

된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 두 후보 간 표차는 89만1452표이다. <관련 기사 2·3·4면> <2면으로 계속> <김유권·채홍길 기자>

조미향·박종여 의원직 상실

대법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 ‘이유없다’ ” 기각

재보궐선거는 1년 1회로 7일 이미 선거 끝나 미 실시
국회 운영위·행정기획위원장 공석...조속 선출 시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61·더불어민주당 신도림동-구로5동)과 박종여 의원(60·국민의힘 구로1-2동)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 제2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과 B인터넷신문 장모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유숙 재판장은 주문을 통해 “1-2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볼수없어 원심 형량을 유지, 피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2019년 6월13일 조미향, 박종여 두 의원의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B신문의 배너광고 관련 기사를 덧가성으로 보고 두 의원에게 200만원을 선고하고, 배너광고 관련 홍보성 기사를 실은 B인터넷신문(부천 소재) 장모 대표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

했다.

이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제404호 법정에서 조미향, 박종여 구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1심 형량인 벌금 200만원이 타당해,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성수제 재판장은 주문을 통해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볼수없어 1심 형량을 유지, 피고인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했었다.

구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선거 보준비 회계 처리 과정에서 조미향, 박종여 두 의원의 B신문에 실린 호의적인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자료를 구로경찰서에 통보했었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22일, 4월4일 재판과 5월16일 최종 변론을 하고, 6월초 탄원서(진정서)와 변론 의견서를 각각 제출 했었다.

구로구선관위는 “조미향, 박종여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올해 재선거는 없다”고 말하고 “선거는 재보궐선거 임기만료 기



조미향 전 의원 박종여 전 의원

간이 1년 미만이고, 년 1회만 실시해 지난 7일 선거를 이미 실시해서 올해는 재보궐선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연 1회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년 2회 실시한다.

구로선관위 지도계 담당자는 “이번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로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선 당시 기탁금 200만원과 선거비용 보전금 등 4천여만원은 반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미향, 박종여 두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구로구의회도 비상이 걸렸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원이 16명서 14명으로 운영되고 두 의원이 상임위원장(조 의원 운영위원장, 박의원 행정기획위원장)이어서 구의회 정상화를 위해선 위원장을 조속 선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I·SEOUL·U
니와 나의 서울

“어르신, 백신 맞으셨어요?”
코로나시대의 안부, 꼭 여쭙보세요!

4월 75세 이상 / 5,6월 65~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 대상자 (2분기)	접종 장소	신청 방법
만 75세 이상 서울시민 (4월) ※ 1946.12.31. 이전 출생자	자치구별 예방접종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가 세대에 방문 접수
만 65세~74세 서울시민 (5~6월) ※ 1947.1.1. ~ 1956.12.31. 출생자	위탁의료기관 (위탁계약된 인근 병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c.kdca.go.kr) 예약, 콜센터(1339) 전화 예약, 위탁의료기관 전화·방문 등

코로나19 취약시설(노년·장애인·노숙인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특수교육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고교사 등
만 64세 이하 만성질환자(당뇨병·심장·중풍·중풍기질 등)
보건의료인 및 경찰·해경·소방·군인·사회복지인력 및 항공승무원

대상자별로 일정, 장소, 접종방법 등이 다름

△ 시기가 되면 접종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정, 접종장소 등 별도 안내 예정 (자치구별로 차이) / 백신 수급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 02-120 / 서울시 홈페이지

오세훈, 박영선 후보 꺾고 서울시장 당선

〈면에서 계속〉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씩씩이 승리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긴 것과는 정반대다.
오세훈 당선인은 8일 새벽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을 다시 뛰게하겠다”며 “한국이 다시 뿔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위중한 시기에 일할 기회 주신 것은 산적한 과제를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해결하라는 지상명령

으로 받들겠다”며 “지난 서울시장 때 머리로 일했다면, 앞으로는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표 완료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62.67%로 김영춘 후보(34.42%)를 두배 가까이 제치며 당선됐다.
한편 오세훈, 박영선 후보에 이어 3위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1.07%, 여성노동당 김진아 후보 0.68%,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0.48%, 무소속 신지예 후보 0.37%, 진보당 송명숙 후보 0.25%, 민생당 이수봉 후보 0.23%, 미래당 오태양 후보 0.13% 등의 순이다.
개표가 끝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번 재보궐선거의 당선인 결정 절차를 완료

할 예정이다.
박영선 후보 패배 인정
박영선 후보는 개표 초반 패배가 확실시되자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며 사실상 승복 선언을 했다. 박 후보는 “천만시민의 새로운 봄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 봄이 지고 말았다”며 회초리를 들어주시는 시민들의 마음도 제가 모두 받겠다. 이제 새로 피어나는 연초록 잎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지방선거 영향 줄듯
한편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인 송현옥씨와 함께 3일 오전 광진구 자양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종로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승리로 서울에서 10년, 부산에서 3년 만에 민주당에 빼앗긴 지방권력을 되찾았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광역단체장 2명을 새롭게 뽑는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 일찌감

치 ‘대선 전초전’으로 자리매김했던 이번 재보선 결과로 인해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내년 6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서울 평균 투표율 58.2%, 구로 57.69% 사전투표율은 서울 21.95%, 구로 21.47%

신도림동 65.74%로 가장높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 전체 58.2%(사전투표율 포함)로 최종 집계됐다. 구로구 투표율은 57.69%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4·3 재보선과 2017년 4·12 재보선 투표율은 각각 48%, 28.6%였다.

7일 오후 8시 현재 구로구선관위에 따르면 총 유권자 35만6,799명 가운데 20만5840명이 투표해 평균 57.69%(사전투표율 포함)를 기록했다. 신도림동이 65.74%로 제일 높고 가리봉동이 43.39%로 제일 낮았다. 두 동은 무려 22.35%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시행된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6·4 지방선거 이후 최고 수치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21.4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시작된 사전투표에 유권자 35만 6,799명 가운데 7만6,58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구로1동이 29.95%



7일 오후 수궁동 우신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로구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구로구청 3층에 마련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개표 종합상황실. 13명의 구청직원들이 7일 새벽 5시부터 8일 오전 9시까지 비상근무를 했다.



구로2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로2동 제1투표소에 7일 오전 유권자들이 줄지어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개표장인 우신고등학교 체육관으로 이송된 투표함.

로 가장 높고 가리봉동이 18.09%로 가장 낮았다. <채홍길 기자>

‘만일 사태’ 대비 구청·경찰·소방서·한전 등 ‘비상근무’

투·개표장 이모저모

0...관내 16개동 99개 투표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구로2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구로2동 제1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이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비닐장갑 착용을 마치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정모씨(54)는 “비닐장갑을 끼고 도장을 찍기 불편하긴 했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며 “이번 보궐선거가 아무탈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오후 8시15분 방송3사 출구 조사 결과 1-2위간 격차가 20%이상 크게 나자 우신고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엔 여야의 개표 참관인들의 표정이 갈라졌다. 국민의힘 참관인들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더불어민주당 개표 참관인들은 맥빠지고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개표장 특유의 긴장감은 찾아볼수 없었다.

이날 구로구 관내 99개 투표소의 투표함이 속속 우신고 체육관으로 이송되어 사전투표함이 먼저 개봉됐고 바로 이어 일반투표함을 개봉해 민의(民意)를 확인했다.

이날 개표는 분주한 움직임 속

에서도 사고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새벽2시에 완료됐다. 0...서울시장 보궐선거 투·개표가 오전 6시부터 구로관내 9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선거가 안정하고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구청, 경찰, 소방, 한전, KT 등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KT는 우신고등학교의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용번호 ‘1390’ 운영에 이르기까지 통신망 운용을 지원하고, 구로보건소에서는 투표소와 개표소의 방역을 실시하고 후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투표소 입구에서는 전담인력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도왔다.

오후 8시 투표마감 후에는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의 호위하에 개표소로 이송했다.

이날 구로 관내 99개 투표소의 투표함이 속속 우신고 체육관으로 이송되어 사전투표함이 먼저 개봉됐고 바로 이어 일반투표함을 개봉해 민의(民意)를 확인했다.

소방서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현장 대응단의 소방차 1대, 안전요원 5명을 지원했다. 한전에서는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대기했으며, 구로경찰서에서는 투표함 이송 지원 등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경찰병력 200여명을 지원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게재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변호사, 국회의원 거친 서울시장 3선 '스타정치인'

오세훈 시장 당선자 그는 누구인가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고 당선된 오세훈 당선자는 사법시험 21회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변호사로 방송에 출연하다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강남구 을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16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스타 정치인이 됐다. 선거공영제, 비례대표제 실시 및 지구당, 정당후원회 폐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정치 개혁의 선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에 불출마했다.

오세훈 당선자에게 서울시장은 '독이 든 성배'

서울 성동 출생, 중동중·대일고·고대·사시 출신
2006년 법무장관 출신 강금실 제치고 시장 당선
2011년 재선후 '무상급식 투표 미달' 시장직 반납

였다. 잠시 정계를 떠나있던 오세훈 전 의원은 이명박 전임 시장의 뒤를 이어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120' 번으로 대표되는 서울시 통합민원서비스인 다산콜센터와 '디자인서울' 프로젝트가 그의 업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구청장과 서울시 의회 다수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며 서울시 운영에 난항을 겪었고, 2011년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투표를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어 시장직을 반납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혐지 출마 요청을 받았지만 '정치 1번지' 종로구에 출마했다. 전북에서 지역구를 옮긴 정세균 후보에게 선거기간 내내 우세했지만 막판에 역전 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지만 대선엔 불출마 했다. 2018년 새누리당 탈당과 정당인 바른정당과 안철수계 정당인 국민의당의 통합을 앞두고 바른정당을 탈당했고, 결국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자유한국당 당 대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 구로1동 구일역 앞 굴다리 인근 주공아파트단지 앞 유세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구로를 서남권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당심을 잡지 못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패배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는 자신의 고향인 광진구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전락공천된 정치 신인 고민정 의원에게 2.5%포인트 차로 패배하면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오세훈 당선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고 내년에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출마가능성이 낮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보궐선거에 기습 출마하며 오세훈의 재출마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결국 지난 1월 7일 '안철수의 입당'을 요구하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해 야권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급기야 여세를 몰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오세훈 당선자는 1961년 서울 성동구 출생으로 중동중, 대일고, 한국외대 법대 입학, 고려대 법대 편입 학사·석사·박사다. 가족으로는 고려대 동갑내기 부인 송현옥(세종대 교수)과 2녀가 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구로구 5급 과장급 승진 예정자 7명 발표

7월1일 공로연수 과장급 7명 후임

구로구는 지난 4월2일에 오는 7월1일자로 행정직 5급 과장급(지방사무관) 승진 예정자 7명을 발표했다

6급(팀장급)에서 5급(과장급) 승진 예정자는 △안용호(감사실) △김인순(기획예산과) △전경심(환경과) △김재한(교통행정과) △장현실(민원여권과) △김동규(청소행정과) △장우철(스마트도시과)이다. 승진 예정자는 오는 4월19일부터 5월21일

까지 5주간 서울시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재택근무하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7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과장급은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유병철(위생과장)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백화용(민원여권과장) △권임석(구의회 전문위원)이다.

〈김유권 기자〉

구로희망복지재단 신임 이사장에 조운장씨 선출

(재)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에 조운장씨(삼우코리아 대표·66세)를 선출했다.

아울러 강광식((주)에스더블류 몰드텍 대표), 박재근(나이스솔루션 대표), 신원섭((주)남광아이티 부사장) 이성진(이노덱((주) 대표) 이운희(삼농요양원 원장)씨를 새 이사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구로희망복지재단은 당연직 이사인 김현숙 구로구 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해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김장곤 변호사, 이창호 공인회계사) 체계로 운영하게 됐다.

오는 4월 11일로 모두 6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형춘 현 이사장과 송희순, 박정순, 이수영, 하



조운장 신임 이사장

오자 이사 5명은 새로 신설된 운영 이사로 자리를 옮긴다.

구로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임원 개편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구민의 실질적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지역복지재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재)구로희망복지재단은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에 대한 서울시의 취임 승인을 받은 후 5월 중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만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게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통의 맛을 담은 중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좋은 곳에 공간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푸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품이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천왕동에 '청소년문화의집 2호점' 개관

예산 79억2천여만원 들여 연면적 1,885.86㎡ 4층 규모로 스마트홀, 상담복지센터, 목공예·요리·음악 연습실 등 갖춰

구로구가 천왕동(오리로 1115)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했다.

구는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총 79억2,6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1,885.86㎡ 규모에 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 1층에는 스마트홀과 북카페가, 2층에는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과 다목적실이, 3층에는 동아리실과 취미활동을 위한 목공예·요리·음악연습실이, 4층에는 강당, 체육시설 등이 조성됐다.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는 2019년 시작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하지 못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프로그램 부분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프로그램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스마트 Y기획단, 디지털 팩토리, 미디어리터러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시민 역량을 함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 2021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롯데시티호텔 구로'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양시키는 디지털 시민놀이터, V로 그 평화탐험대, 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 운영위원회, 마을자치위원회, 멘토와 연계한 다양한 창의진로 체험 제공 등 총 43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지역주민은 강당, 체육실, 카페, 프로그램실 등 부대시설 대관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대관 운영여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방문하거나 유선(02-2066-1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는 2015년 5월 공동(부일로 949)에 1호 청소년문화의집을 오픈한 바 있다. 연면적 1,18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연·밴드 연습실, 프로그램실, 북카페, 달콤학교(위탁형대안학교), 대강당, 체육실 등이 갖춰져 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문화센터 1, 2호점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가, 문화 생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무한리필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판매 방법이다. 무한리필의 종류는 모든 음식에 퍼져 있다. 연구에 의하면 무한리필이 그냥 사 먹을 때 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지 못한다고 한다.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위장이 아니고 뇌다. 뇌가 무한정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는 순간 이미 포만감을

잠을 자고 먹는 밥은 별로 맛이 없는 것과 같다. 돈을 꾸준히 저축해서 구입한 자동차는 고급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매일 볼 때 마다 즐겁다.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을 한 고가의 외제차에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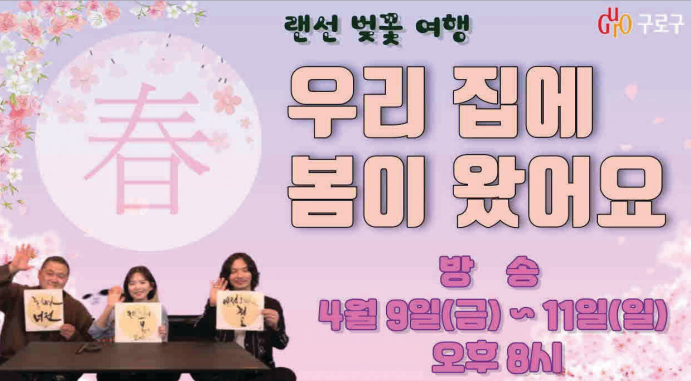
봄처럼 사는 사람과 가을처럼 사는 사람 ㉠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한다. 금수저들은 세상을 무한리필로 산다.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부분은 마음대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금수저나, 부유층을 부러워 하지만 노동이 없는 음식을 먹어 본 경험을 돌이켜 보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한 끝에 먹는 밥은 꿀맛이지만, 늘어지게 낮

이 개입되지 않아서 금방 싫증을 느끼기 마련이다. 봄은 결실의 시작이고, 가을은 휴식의 시작이다. 1년 365을 봄처럼 산다면 늘 설렘과 희망이 있는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설렘만큼 엔도르핀을 촉진시키는 생각도 드물다. 세상을 늘 봄처럼 산다면 하루하루가 발전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을처럼 산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본지 회장>

관내 봄꽃 명소 "올해는 랜선으로 즐기세요"

관내 지역예술가가 봄꽃 영상 중계-명소사업 현황도 소개
9일~11일까지 오후8시 '구로G페스티벌' 유튜브 채널로 송출



구로구가 안방에서 안전하게 봄꽃을 관람할 수 있는 랜선 벚꽃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는 "서울 각 지역 벚꽃 명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통제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관내 봄꽃 명소를 랜선으로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집에 봄이 왔어요!" 구로구가 안방에서 안전하게 봄꽃을 관람할 수 있는 랜선 벚꽃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로구는 "서울 각 지역 벚꽃 명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에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구로구 봄꽃 명소를 랜선으로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랜선 벚꽃 여행 프로그램은 이정화 서예가, 운영권·신연태 음악가, 박건택 미술가 등 관내 지역 예술가가 영상을 통해 봄꽃이 만개한 구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안양천 온라인 걷기대회, 안

양천 명소화 사업 등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버스킹, 마술쇼, 가훈 쓰기 등의 행사도 진행해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양천, 구로거리공원, 숲은 봄꽃 명소 등 총 3편으로 제작돼 9일부터 11일까지 오후 8시 '구로G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로 벚꽃 영상에 대한 소감도 나눌 수 있다. 이재순 문화관광과장은 "안양천 벚꽃 산책길을 직접 걸으며 즐기지 못해 아쉽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벚꽃 여행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귀뚜라미에너지, 구로구장학회에 장학금 3000만원 기부

귀뚜라미에너지가 지난 3월 31일 구로구장학회에 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개최된 이날 전달식에는 이성 구청장을 비롯해 이명호 귀뚜라미에너지 대표이사, 이홍복 구로구장학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호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 사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기부된 장학금은 구로구장학회

를 통해 지역 내 성적 우수 학생과 지정 장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이성 구청장은 "지역을 위한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구청도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귀뚜라미에너지는 구로구 경인로46길 51에 소재한 기업으로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지역 40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귀뚜라미에너지 이명호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3000만원의 장학금을 이성 구청장에 전달하고 있다.

구로구 관내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구청 앞 사거리 가로화단 새단장

새봄을 맞아 구청 앞 사거리에 빨간 튜울립으로 꽃단장을 마친 가로화단이 구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구로구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 사거리 등 5곳에 3천여본을 식재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튜울립 모근을 식재한 것이 최근에 활짝 만발했다.



이명숙 구의원 가장 많은 29억6천3백만원 신고

구로구 주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현황

서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구로구 공개 대상자는 국회의원 2명, 구청장, 시의원 4명, 구의원 16명이다. 지난 3월 25일 재산 공개가 있었다. 구로(갑)의 이인영 국회의원(통일부장관)은 10억 5천 2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천3백 만원 증가했다. 구로(을)의 윤건영 의원은 7억9천2백 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천 5백만원 상승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경기도 부천의 전세 아파트 만료에 따른 신도림동 아파트 전세 임차료가 증가한 원인이 크다.

이성 구청장은 3억6천 3백만원으로 지난해 3억3천5백만원에 비해 2천8백만원 증가했다. 시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8억 4천 만원이다. 이중 황규복 시의원이 15억9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천9백만원 감소 했다. 황규복 시의원의 재산을 제외한 1인당 평균 재산은 5억4백만원으로 구의원들(6억3천만원)보다 9천만원 적다.

◇구의원 평균 11억2천5백만원

구로구 구의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11억2천5백 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억 이상은 이명숙 비례대표가 가장 많은 29억 6천3

이성구청장 2천800만원 증가 3억6천3천만원 신고
이인영 통일장관 10억5천, 윤건영 국회의원 7억9천
서호연 구의원 9억9천여만원 증가한 25억9천만원
김희서 구의원도 작년 비해 4억 늘어 11억7천만원
황규복 시의원은 1천9백만원 감소한 15억9천만원

백 만원이다. 두 번째는 신도림동, 구로5동의 조미향 의원이 26억 9천2백만원을 비롯해서 모두 6명이다. 지난 해는 5명이었으나 오류 1, 2동 수궁동의 김희서 의원이 지난해 7억7천3백만원에서 올해 11억7천3백만원으로 4억 이상의 재산이 증가, 10억 재산 대열에 합류했다. 구의원 중 10억 이상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평균 재산은 6억 3천만원이다.

◇이호대 시의원 1억2천만원 증가

이호대 시의원은 지난해 신고액 5억4천8백만원 보다 1억2천5백만원 증가한 6억7천3백만원을 신고했다. 2020년 신고 때도 2019년 보다 1억6백만원이 증가했다. 연 2년 째 1억 이상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된다. 올해 1억2천5백만원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아파

트 가격 변동으로 나타났다.

◇이명숙 구의원 29억4천만원 신고

구의원 중에 신고액이 가장 많은 이명숙 구의원은 30억 원에서 5천7백만원이 부족한 29억4천 3백 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 27억1천만원에서 2억5천3백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2020년에도 2019년 24억4천1백만원 대비 2억6천8백 만원 증가했다. 2년 연속 2억 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차남의 전세 임차권 2억5천만원이다.

◇정대근 구의원 6천6백만원 줄어

구의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한 의원은 고척1-2동, 개봉1동의 정대근 의원이다. 정대근 의원은 지난해 보다 6천6백만원 감소한 3억3천3백만원을 신고했다. 감소한 요인으로는 금융기관의

구로구 주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현황

단위(천 원)

이름	지역구	2020년	2021년	증 감
이인영	구로 갑 선거구	1,009,391	1,052,530	43,139
윤건영	구로 을 선거구	717,339	792,931	75,592
소 계		1,726,730	1,845,461	118,731
이성	구청장	335,339	363,420	28,081
소 계		335,339	363,420	28,081
장인홍	1선거구	273,592	369,581	95,989
이호대	2선거구	548,102	673,336	125,234
황규복	3선거구	1,613,695	1,594,535	-19,160
김인제	4선거구	546,774	579,455	32,681
소 계		2,982,163	3,216,907	234,744
박동웅	개봉 2.3동	638,889	710,758	71,869
박윤희	오류1.2동 수궁동	428,523	700,188	271,665
김명근	고척1.2동 개봉1동	402,329	471,183	68,854
김철수	구로1.2동	911,723	906,189	-5,534
김희서	오류1.2동 수궁동	773,679	1,173,713	400,034
노경숙	비례대표	411,860	451,423	39,563
박종여	구로1.2동	739,860	826,799	86,939
박평길	개봉2.3동	532,294	675,496	143,202
박철성	구로3.4동 가리봉동	1,175,679	1,200,317	24,638
서호연	구로3.4동 가리봉동	1,602,146	2,595,732	993,586
이명숙	비례대표	2,710,356	2,963,536	253,181
이재만	고척1.2동 개봉1동	515,272	560,205	37,250
정대근	고척1.2동 개봉1동	399,831	333,513	-66,318
정형주	오류1.2동 수궁동	548,937	669,167	120,230
조미향	신도림동, 구로 5동	2,692,445	2,643,097	-49,348
최숙자	신도림동, 구로 5동	1,011,673	1,131,570	119,897
소 계		15,495,496	18,012,886	2,517,390

채무 증가이다.

◇재산 1억원 이상 증가 구의원 7명

2021년 신고한 재산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구의원은 전체의 44%인 7명이다. 이들의 총 증가액 인 23억1백만원이며 평균 재산 증가액은 3억2천9백만원이다. 이 중 서호연 의원 증가액 9억9천3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명의 평균 증가액은 2억1천8백 만원이다.

◇서호연 의원 9억9천3백만원 증가

구로구 고의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이 가장 많게 증가한 의원은 구로3-4동, 가리봉동의 서호연 의원이다. 서 의원은 25억9천6백만원으로 신고, 전년 대비 9억9천3백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자녀 혼인으로 인한 5억6천만원 아파트 구입 및 단독 주택 구입이다.

〈한만수 기자〉

우리동네키움센터 2곳 추가 개소

개봉2동, 구로3동 ...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모두 15곳
주인 커뮤니티시설 활용 '구로형 온종일 돌봄센터' 도 17곳 운영

구로구가 우리동네키움센터 2 곳을 추가 개소했다.

구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개봉2동과 구로3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마련하고 이달 1일 운영을 시작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실시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 1일 개봉2동과 구로3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새로 열었다. 이에 따라 구가 운영



구로구가 우리동네키움센터 2곳을 추가로 개소했다. (사진은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15곳으로 늘었다.

개봉2동에 마련된 '개봉종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숲속어린이 집(개봉로 18길 35) 2, 3층에 자리잡았다. 면적 302㎡, 정원 30명으로 구로구 관내 키움센터 중 가장 큰 규모다.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디지털로 31길 93) 2층에 96㎡ 규모로 조성됐다. 정원은 20명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숙제 봐주기, 학원 챙겨 보내기 등 돌

봄서비스와 독서,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봉종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무상 급식도 제공된다.

이용 시간은 '개봉종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청소년과(860-2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이는 해당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iseoul.seoul.go.kr/icare)에서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구로형 온종일 돌봄센터'도 운영한다.

'구로형 온종일 돌봄센터'는 작은도서관, 마을활력소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해 학부모와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다. 센터별 20명 내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 챙겨 보내기, 숙제 봐주기 등 기본 돌봄과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구로구는 4월 현재 총 17곳의 구로형 온종일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부서장급 7명 인사 이동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은 지난 4월 1일자로 부서장급(팀장,파트장) 7명을 전보하는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공단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항동생활체육관, 천왕산가족 캠핑장 등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인사이동 내용을 살펴보면, 구영서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이

경영지원팀장으로, 김진오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이 시설안전팀장으로,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이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으로 이재범 시설안전팀장이 사회서비스사업팀장으로, 구로구민체육센터 서은주 차장이 주차사업팀장으로 발령됐으며, 김도연 주차파트장이 감사파트장으로 한정광 기획감사파트장이 주차파트장으로 이동했다.

〈채홍길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구로구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구로구인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사업장이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자치구로 일괄 신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구청 부과과를 통해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구청 부과과(860-21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155~6. 〈김유권 기자〉

개봉3동 사우나서 확진자 24명 집단 발생

구민 16명 포함... 접촉자 450여명 전수 검사

개봉3동 소재 옥(유전) 사우나에서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서울시와 구로구에 따르면 개봉3동 소재 옥(유전) 사우나 종사자 4명(타시도)이 사우나 종사자 전수검사서 지난달 25일 최초 확진된 후, 28일까지 7명, 29일에 6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4월 1일 현재 확진자는 총 24명이고 구로구민은 16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451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3명, 나머지는 음성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출입시 방명록을 작성하고 면적당 출입자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그러나 탕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오랜 시간 사우나에서 머무는 과정에서 종사자로부터 이용자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용자가 참석한 다른 모임의 참석자에게 추가 전파되는 등 엔(N)차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구로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접촉자를 분류하고 사우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검사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달 13일부터 25일까지 구로구 소재 옥(유전)사우나를 이용하신 분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며 "사우나는 최대한 짧은 시간 이용해 주시고 시설에서는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와 탈의실 등 공용공간 표면소독 실시,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합동 모의훈련' 실시

구민회관서 보건소·의료진·소방·가상 접종자 등 60여명 참여, 전 과정 점검
1분기 대상자 6,595명 접종 완료... 15일부터 접종센터서 20여만명 접종

구로구가 지난 2일 구로구민회관(가마산로 25길 21)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예방접종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구로구는 "오는 15일 예방접종센터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백신 준비부터 접종, 이상반응 등 돌발 상황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의훈련에 앞서 이성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보관부터 시설, 인력 지원까지 철저히 준비했다"며 "이번 접종 모의훈련과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들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모의훈련에는 구로구보건소, 의료진, 군·경찰·소방인력, 가상 접종자 30명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훈련은 화이자 백신의 보관과 관리부터 입장대기, 신원확인, 예진표 작성, 의사예진, 예방접종, 접종등록 및 확인서 수령, 접종 후 관찰, 관찰종료 후 귀가 등의



구로구가 지난 2일 구로구민회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예방접종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구는 오는 15일 예방접종센터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백신 준비부터 접종, 이상반응 등 돌발 상황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상반응 환자 발생과 병원 긴급 이송 등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영하 75도 안팎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을 고려한 냉장시설 전력관리, 정전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모의훈련 참관 후 서울시, 민간 전문가, 타 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총평을 실시했다.

한편 구로구는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 6,595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시작으로 일반 지역 주민까지 20여만 명에게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채홍길 기자〉

관내 확진자 또 급증세... 모두 1,214명

8일 현재 '개봉3동 사우나' 관련 등 일주일새 50여명 늘어

서울 확진자 3만3441명-사망은 431명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현재 개봉3동 옥(유전)사우나 관련 16명(전체 24명) 등 일주일새 50여명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8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1,214명으로 일주일새 50여명이 늘었다.

이날 현재 사망자는 지난주와 변함없이 10명이며 1,127명이 완치 퇴원, 72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390명, 해외입국자 389명 등 모두 779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돌요양병원 관련 45명, 오류동 해적집 관련 41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개봉3동 옥(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655명, 해외 입국 7명, 기타(조사중) 36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8일 현재 모두 3만3441명으로 사망자는 431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송파구가 제일 많은 1,853명 ▲강서구 1,829명 ▲강남구 1,595명 ▲관악구 1,581명 ▲노원구 1,487명 ▲은평구 1,463명 ▲중랑구 1,445명 ▲성북구 1,416명 ▲동작구 1,410명 ▲서초구 1,344명 ▲양천구 1,232명 ▲영등포구 1,220명 ▲강동구 1,216명 ▲구로구 1,214명 ▲동대문구 1,177명 ▲마포구 1,088명 ▲광진구 1,028명 ▲도봉구 1,019명으로 18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용산구 910명 ▲강북구 891명 ▲성동구 887명 ▲서대문구 842명 ▲종로구 636명 ▲중구 535명 ▲금천구 504명을 기록하고 있다.

〈김유권 기자〉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3만4374필지 26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 통해 확인

구로구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만43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안을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청 홈페이지, 서울시부동산정보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info>),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관리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적정 의견가격과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지가산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은 대면 또는 전화로 실시되며,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809)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無人 민원발급창구 서비스 확대

노후구로1·고척2·개봉3·가리봉·수궁동 5곳 교체 구로2동 추가... 무인발급기 총 31대 24시간 운영

구로구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창구 서비스를 확대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로 구로1동, 고척2동, 개봉3동, 가리봉동, 수궁동주민센터 5개소의 기기가 교체됐다.

시각장애인 겸용 발급기로 음성안내, 점자라벨, 화면확대 등의 기능을 갖췄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매각 예정으로 구로구는 공단 내에 있던 발급기를 구로2동주민센터 1층으로 이전 설치했다.

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

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오류2동, 신도림동주민센터 발급기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5시~익일 1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된다.

구로구는 현재 ▲구청 본관 ▲16개 동주민센터 ▲구로역, 개봉역, 오류역, 운수역, 천왕역 등 전철역 ▲신도림테크노마트 ▲새마을금고 가리봉제1지점 ▲구로세무서 등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 장소, 위치,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구청 민원여권과 860-2301.

〈채홍길 기자〉



구로구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창구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교체하고 시각장애인 겸용 발급기로 음성안내, 점자라벨, 화면확대 등의 기능을 갖췄다. (사진은 신도림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21세기 기인(奇人)처럼 사는 김승길 작가 92년 신춘문예 희곡 동시에 2개 중앙紙에 당선

문학도들이 꿈꾸는 월계관은 신춘문예일 것이다. 각 신문사마다 장르별로 1명씩 뽑은 좁은문을 통과한 사람은 1년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헤아릴 정도다. 그만큼 신춘문예 당선은 문학도들의 로망이자, 소원이다.

비원문화장터 인성개발원 원장 김승길 희곡작가, 수필가, 시인은 92년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두 신문의 신춘문예에 당선된 됐다. 희곡 '호드기'와 '해부'가 당선된 김승길 씨는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것 외에 5개의 대학 졸업장이 있다.

서울예술대학 극작과 졸업/스리랑카 빠알리 불교대학 사회철학과(문학사학위)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사학위) 성균관



대학교 사회복지대 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시대의 기인 김승길은 각종 자격증도 수렵했다.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교원자격증 취득/국제표고사 자격 취득/대한민국 합기도 협회(공인 5단)/종로1.2가동 새마을문고위원 역임/한국연예정보신문 연예부차장 역임/자람 유치원 이사장 역임/(주) 슈퍼푸드뱅크 상임고문 역임/법신문 사회부장 역임/월간 문예비전 기획실장 역임/극단지역 대표를 맡고 있다.

시인이자 한국 현대시론연구회장인 김승배 씨는 기인 김승길의 시사상이 '생멸(生滅)과 조내의 시학적 탐색' 이라고 극찬했다. 그의 시 '자신, 관조'를 언급하면서 "김승길 시인은 '나'라는 화자

를 통해서 '자신'을 세밀하게 '관조'하고 있다. 그는 '내가 내 곁으로 다가 오거나 '내 곁의 내가 보'이고 말을 걸어오거나 또는 '내게 미소를 보'내오지만 어떤 일인지 '바쁘단 핑계로 자주 못만'나는 형상으로 시법을 전개하고 있다.

기인 김승길 씨는 각종 언론에 기고도 활발하게 했다. 한국연예정보신문, 일간스포츠, 주간경향, WIN WIN 월간지, 법신문, 스포츠조선 등에 평론과 처세술, 꿈해몽 등을 연재하면서도 MBC 카카메이 메이킹업만 출강, SBS 신바람 스튜디오 등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장편소설 '인생'(전2권) 등 4권을 출간했으며, 에세이 집 '왜?' 등 4권, 시집 '미래에서 온 세상' 등 5권을 상재했다.

김승길 기인은 현재 운명 상담, 작명, 기업체 인맥관리, 처세술 등에 출강중이다. <한만수 기자>

오류아트홀 시그니처 공연 '수요음악방 시즌Ⅲ' 개막

오류아트홀의 시그니처 공연 '수요음악방'의 2021년 시즌 공연이 오는 4월 첫 문을 연다.

첫 공연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1시 오류아트홀에서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 좌석을 통한 안전한 공연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음악방'은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아티스트와 관객이 가깝게 소통하며 함께 공연을 이끌어가는 형식의 공연은 시즌을 거듭하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수요음악방 시즌Ⅲ>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공연을 통해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주는 기쁨을 선사한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주단체와 연주자, 라이징 스타들이 무대를 찾는다.

4월 공연에는 '2019 한국문화예술대상' 팡페라그룹 '대상'을 수상



한 포엣의 멤버 황호수(바리톤)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8' 미스터리 싱어로 출연하여 주목을 받았던 팡페라 가수 송은혜가 뮤지컬 넘버로 설레임 가득한 무대를 꾸민다.

5월에는 한국 전통 악기인 대금과 서양악기인 피아노, 병창전공의 보컬의 조화로 이루어진 크로스오버 팀 '온도'가 울림이 있는

국악무대를 선보인다. 6월에는 세계여행 중에 얻은 영감을 통해 작품활동을 하는 이정규 기타리스트와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별(베이스), 손밀라(보컬), 채진술(피아노), 김선호(드럼)가 함께 재즈공연을 선보인다. 7월에는 해설과 함께 리움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리움챔버오케스트라>는 고전 클

초대시

꽃이 사는 동네에서

시인 고철



너는 왜 생각을 배워 가지고
나한테 생각을 주는 것이냐

나는 쉬운 인간을 좋아하지 않아
그들은 쉬운대로 꽃을 해독하거든
그래서
피워야 할 꽃들은 아주 까다롭지

인간은 해골이 되려고 태어나고 늙어간다 했어
꽃, 꽃들은 지문을 숨기고 뿌리만 남기고 떠나거든

그나저나
꽃의 본질을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오늘은 캄캄해서 잘게, 잘자

- 강원 절원 출생 흥천서 성장
- 2000년 <작가들>에 꽃상여 외 다섯 편의 시를 발표 등단
- 시집 <핏줄> <고의적 구경> 등
- 제1회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및 다년 지원사업 선정

금담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토지·건물·공장·아파트·주택 / 매매·임대 상담환영

T. 02-2068-09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30

국악무대를 선보인다.

6월에는 세계여행 중에 얻은 영감을 통해 작품활동을 하는 이정규 기타리스트와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별(베이스), 손밀라(보컬), 채진술(피아노), 김선호(드럼)가 함께 재즈 공연을 선보인다.

7월에는 해설과 함께 리움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리움챔버오케스트라>는 고전 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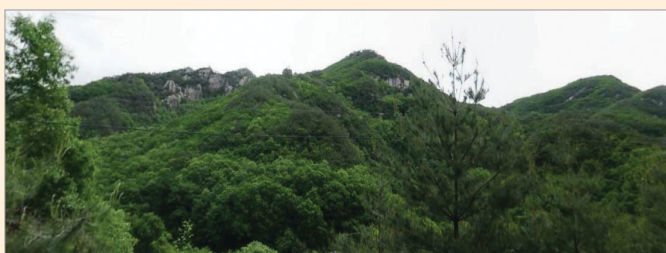
래식 작품에서부터 창작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함께 한다.

<수요음악방 시즌Ⅲ>은 오늘 7월까지 매월 1회 수요일 오전 11시 오류아트홀에서 열린다.

구로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www.guroartsvalley.or.kr)와 인터파크 홈페이지(ticketpark.com)를 통해 예매할 수 있고 티켓 가격은 전석 1만5천원이다. 문의 02-2614-7970. <채홍길 기자>

이제 산·임야가 대세이다

임야 1평 3,000원... 서울 땅 1평이면 1만평을 산다!



*산나물·산약초를 키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장뇌삼 씨를 뿌려 보지 않겠습니까?

남의 산(임야)에서 산나물·산약초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나무 한그루에 500만원부터 3억원까지 거래가 되는 시대입니다.
- 쓸모없는 나무는 베고, 쓸모있는 나무를 가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가족 캠핑장을 조성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전 세계는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강제로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산림청은 매년 전국 사유지 임야를 2천여만평씩 국유림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임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010-9096-1144